

호찌민 주석의 “국민을 근간으로”본사상과 다산 정약용의 “애민”사상에 대한 몇 가지 생각

Dr. Le Dang Hoan

베트남 한국학술 연구회

“손문과 호지명과 김구”글에서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 고은 님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호찌민 주석)의 젊은 날, 청나라 말기의 실학, 조선의 실학과 함께 베트남의 유학에도 실학이 일어났다. 그래서 호지명 총각은 조선의 정약용이 남긴 “목민심서”를 읽고 받은 감동으로 정약용의 기일을 알아내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런 그는 프랑스, 일본 등 미제국주의와의 싸움으로 생애를 불살랐다. 싸움꾼이건만 인물이 컸다”.

지금까지는 호찌민 주석이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 봐야 한다.

그렇지만 초보적인 연구를 통해서 호찌민주석의 사상과 다산 정약용의 사상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 발표에서는 베트남 혁명 지도 과정에서 “국민을 근간으로” 본 호찌민 주석의 사상과 19 세기에의 조선의 문화인이자 사상자인 다산 정약용 의 “애민” 사상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과 느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출발점

베트남과 한국은 문화, 사회 역사상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 예로부터 중국의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특성이 있다.

호찌민주석 (1890-1969)은 베트남 민족에 있어서, 애국자이자 베트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다. 자기의 혁명 생애 전 기간에 걸쳐 베트남 혁명이나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 방침에는 “국민을 근간으로” 라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호찌민 주석의 “국민을 근간으로”본 사상이 옛날 중국에서 온 유교 사상인 “위민위본” 사상과 기본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사상에서의 좋은 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것은 호찌민 주석이 본인의 훌륭한 아버지, 저명한 유교자인 Nguyễn Sinh Sắc (1863-1929)의 유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산 정약용 (1762-1836)은 18 세기에의 조선의 실학자였다. 유명한 실학자로서 후세에 여러 다 방면에서 엄청난 분량의 서적을 남겼는데 경제, 정치, 역학, 지리, 문학, 의학, 철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이 있다.

깊은 학술 세계를 포함한 다산 정약용의 500 여권의 책이 훌륭한 고전 문학작품으로 되고 지금까지 시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애민” 사상은 그가 1818 년에 쓴 “목민심서”이라는 책에 담겨 있다. 여기에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호찌민의 사상이 “수령과 백성” (지방관리와 국민) 사이 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분이 서로 만나지 않았는데 “큰 사상”을 가지고 유교 사상으로부터 동일한 철학을 가져왔으며, 이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철학적 사상에서 이미 정신적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호찌민 주석의 “국민을 근간으로”본 사상과 “목민심서”에서의 정약용의 “애민”사상:

2.1/ 호찌민 주석의 “국민을 근간으로”본 사상의 기본 내용:

호찌민 주석의 혁명지도 전 과정에서 “국민을 근간으로”본 사상의 기본 내용이 다음과 같다 :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이다.

모든 이익이 국민을 위하고

모든 권한이 국민의 것이고

개방이나 나라 건설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것이고

항전과 건국사업이 국민의 사업이고

마을, 동으로부터 정부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고

마을로부터 중앙까지의 모든 단체는 국민으로 조직되고'

한 마디로 말하자면, 권세와 역량이 모두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모든 사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국민을 귀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호찌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천지에서 국민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세계에는 국민의 단결력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 “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3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천시, 지리, 인화”이다. 이 3 가지가 다 중요하다 . 그러나 “천시”보다 “지리”가 더 중요하고 “지리”보다 “인화”가 더 중요하다. “인화”란 모든 사람이 일치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화”이다. 자기의 혁명활동 과정에서 호찌민 주석은 “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일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국민의 응원하지 않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나라는 국민을 근간으로” 하고 “근간이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성리는 국민의 근간으로부터 세워진다” 는 방침으로 지도했다.

- 국민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의 전 생애동안 호찌민 주석은 국민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유언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 우리 국민이

도시에나 산간지역에나 대대로 가난을 겪었고, 봉건과 식민지 착취를 당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매우 영웅적이고 용감하고 열성이 높고 근민 했다. 당이 설립할 때부터 본인들의 열정을 다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경제 문화 발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 생활에 대한 당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당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배가 고프면 당의 잘못이고 국민이 추우면 당과 정부의 잘못이고 국민이 무식이면 당과 정부의 잘못이고 국민이 병이 나면 당과 정부의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부터 중앙까지 당과 정권의 지도자는 국민의 생활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과 친근하고 국민의 생활 상황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인생동안 호찌민 주석이 베트남 각 지방의 국민들의 생활을 알아 보기 위해서 그 지방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의 국민과 가까운 품성은 그의 검소한 생활 방식에 나타난다 . 국가의 주석이지만 그의 생활과 의복, 주택이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항상 관료주의를 피하고 국민과 떨어지면 안 되다는 관점을 당원이나 지도자에게 심어주었다.

그는 국가가 통일 된 후에 전국에 있는 우리 나라의 동포, 군인, 노인, 청소년 등을 만나고 그들에게 축하말을 하겠다는 애정을 표했다. 가난에서 군민과 가깝고, 환희 할때 국민과 나눈다는 호찌민 주석의 마음은, 현재 우리 베트남 지도자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된다.

- 걱정은 천하(국민)보다 먼저 하고 즐거움은 천하(국민)보다 후에 한다.

자기의 유언에서 호찌민 주석이 다음과 같이 썼다 “항미와 항전이 몇 해 동안 계속되는 동안 우리 국민이 정부와 당에 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인력과 재력을 기여했고 가난을 잘 참아 왔다. 지금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에 나는 우리 국민들이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지내고, 생산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1 년 동안 농민들에게 농업 세금을 면제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고상한 생활 방침이다. 간난할 때에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면 승리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이익을 향유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근로 국민이다. 이는 호찌민 주석의 전 인생에 일관된 관점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걱정을 해주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요구도 없었다. 언제나 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첫 번째인 것이다.

유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 나의 전 인생은 한마음으로 조국에 복무하고

혁명에 복무하고 국민에 복무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세상과 이별되어 야 하면 후회할

것이 없고 다만 그 이상 더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죽은 후에 국민의 돈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장례식을 크게 하지 말아달라”

2-2. 다산 정약용의 “애민 사상”

다산 정약용의 “애민” 사상이 그의 유명한 작품 “목민심서”에 나타난다. 그 것은 수령과 백성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그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다산 정약용의 관점은 다른 모든 직업 중에서 “목민”이라는 직업이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든 직업이다. 왜냐하면 수령이 월급을 받은 사람의 자격으로 백성에게 관심을 해야 하면서 동시에 모든 생활 측면에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임 처음부터 의복이 검소하고, 백성에게 아무 손해 없이 해야 한다. 국가로부터의 월급 이외에는 백성들로부터 한 전이라도 받지 않는다. 일을 처리할 때 공와 사를 잘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령은 위엄과 스스로 억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위엄이란 백성과 아래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자연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음이 언제나 밝고 청렴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침말을 받지 않고 생활에서 항상 검소하고 가족에서 잘 정리하는 것도 수령의 일이다. 지방으로 부임 할 때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고 친척 방문하여 올 때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 이 것은 경비의 낭비를 피하면서 필요 없는 요구를 피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수령의 원칙이다.

3/ 수령은 노인을 존경하고 백성과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 특히 사궁을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 사궁이라면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수령이 잘 대비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야 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백성에게 최대한 위로하고 지원해야 한다.

4/ 아래 사람을 잘 대하기 위해서는 수령이 자기를 잘 조정해야 한다. 수령이 아래 사람을 은혜와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 재능이 있더라도 아래 사람을 잘 관리할 줄을 모르면 백성을 관리할 수 없다. 게다가 백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인재를 잘 사용하고 맞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관리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충성과 신의를 첫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재능이나 지혜는 두 번째이다.

그외에 수령이 수행한 일에는 명백성과 상.벌을 잘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신뢰성이 있고 백성이 수령의 말을 따를 수 있다.

5/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검수가 필요하다.

농업을 장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농업 세금을 감면하면 좋고 농부에게 요역을

감면해주고 토지 개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6/ 수령이 재해로 인해서 집이 없어지고 재산이 손실된 사람에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7/ 수령이 책임을 완료하고 휴식 할 때가 되면 자기 즉위를 그냥 지키는 것은 수령 도리와 어긋난다. 집에 돌아갈 때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배운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수령 임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백성이 길 옆에 서서 아쉬워하며 길을 막으면 그 수령이 좋은 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병이 나서 오래 동안 일을 할 수 없으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리를 옮겨야 한다. 그외에 죽기 전에 집 사람들이 백성의 조금, 부의를 받지 않도록 유언을 남겨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목민심서”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노인 봉양 :

노인을 공경하는 예가 폐지 된후에 백성들이 효도를 하지 않으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다시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거행해야 한다.

선달 그믐날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린다.

- 어린이를 보살핌 :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법으로 삼아왔다. 백성들이 가난하면 자식을 낳아도 잘 거두지 못하니, 백성들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길러서 우리 자녀들을 보전케 해야 한다.

흉년이 든 해에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어주고 길러 주어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

- 간난한 자를 구제함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 상을 당한 자를 도움:

상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해주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수령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해주는 것이 좋다.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곤궁한 백성을 돕는 일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혹시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거든 주저하지 말고 즉시 구휼을 베푸는게 마땅하다.

좌수와 아전, 군교가 상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는 부의를 보내고 조문하여 은정을 보여야한다.

- 병자를 돌봄 .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몸으로 치르는 모든 노역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질이라 한다.

갑사등이나 불치병자들이 혼자함으로 살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의탁할 곳을 마련해주고 도와 줘야 한다.

유행병이 돌면 사망자가 아주 많이 생긴다. 구호하고 치료하며, 매장해주는 사람에게 마땅히 포상하도록 조정에 청해야 한다.

- 재난을 구함: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지기를 내 것이 불타고 빠진 것처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독을 쌓고 방죽을 만들어 수재를 막고 수리를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다.

재해 뒤에는 백성들을 쓰다듬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해야 하니 이 또한 수령의 어진 정사이다.

3/ 호찌민주석의 “국민을 근간으로”본 사상과 다산 정약용의 “애민” 사상의 유사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

a/국민 생활에 관심

어느 사회라도 마지막 목적이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여주고 안전해 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측도이다. 호찌민 주석과 다산 정약용 의 사상이 여기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활을 관심을 갖고 사궁한 사람들을 돌 보는 사상, 사고 재해가 일어날 때 손실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용, 농민들에게 흉년이라면 세금 면제 , 수리 발전 등 두 분의 사상이 비슷하다고 본다

b/ “근,검,지공 무사”.

국민의 이익을 최상으로 본 관점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수령에게 부임을 받을 때부터 책임을 완료할 때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점은 호찌민 주석이 당원 관리자들을 지도하는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썼다 “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겸양해야 한다.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개인적인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이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 야 현명한 수령이다.

“자기의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풀어 친척들을 도와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임이 시작할 때부터 의복이 겸양하고 백성에게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의 이 사상은 호찌민 주석의 “근,검,렴,정,지공무사” 사상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자기가 국민과 이별하기 전에 호찌민 주석이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 “ 나의 전 인생에 최대로 조국, 혁명 과 국민에게 복무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다. 아까운 것이 있으면 보다 더 오래 동안 보다 더 많이 복무를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떠난 후에 국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큰 장례를 하지 말라” 고 했다.

특히 두 분이 다 농민의 농업세금 감면을 관심을 했다 . 다산 정약용이 “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검수가 필요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보고 농부에게 노역을 감소해주고 토지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면 호찌민 주석이 조국 통일 후에 농부들에게 일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야 할 마음이 있었다.

C/ 국가 일에 담당할 수 있는 인재, 관리자 선택 관점 유사:

호찌민 주석이 혁명지도자라면 “충과전”, 이라는 품질이 있어야 한데 “충”이 도덕, 조국, 당에 대한 충성이라면; “전”은 자기 담당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다. “전”만 있고 “충”이 없으면 조국에 아무 소용이 없다.

다산 정약용이 유사한 관점을 가진다. 즉 “관리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충성성과 신의를 첫 번째 기준으로 보야 하고 재능이나 지혜는 두 번째이다. 그외에 수령이 수행한 일에는 명백성과 상.벌을 잘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신뢰성이 있고 백성이 수령의 말을 따를 수 있다”

d/ 수령 (지도자)의 책임 에대한 유사 관점:

호찌민 주석이 당원과 혁명의 지도자이라면 “국민의 노복”이어야 하고, 힘들고 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장서서 행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다산 정약용은 ‘다른 모든 직업 중에서 “목민”이라는 직업이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든 직업이다. 왜냐하면 수령은 나라의 월급을 받은 사람의 자격으로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면서 동시에 모든 생활 측면에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은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철학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대신에:

이상 초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베트남의 유명한 지도자인 호찌민 주석과 한국의

유명한 실학, 철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사상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호찌민주석과 다산 정약용이 1 세기 정도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두 분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유교학의 좋은 사상을 받았으며, 베트남과 한국이 모두 봉건,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한 나라이면서 두 나라는 같은 아시아 농업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비슷하기에 두 분의 활동 과정에서 유사한 사상, 특히 수령 (목민관, 지방관리)과 국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상이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찌민 주석의 “국민을 근간으로”본 사상이 베트남 혁명 실천을 통해서 훌륭하고 적합한 사상이라는 것을 증명되었다.

“목민심서”에 담긴 다산 정약용의 “애민’ 사상을 지금까지 한국 국민과 한국 대령들이 계승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한국사회가 많이 변화하였지만 이 작품의 내용이 현재까지 시사적인 가치를 담고 있고 한국 지도자의 관리 방침으로 되고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서의 교훈으로 되고 있다.

이 상 글이 매우 초보적인 생각이고 정확하고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

베트남과 한국 우호관계가 매우 좋고 활발한 상황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호찌민 주석의 사상에 대한 보다 더 깊고 넓은 연구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사업에는 여러 분야에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데 실학적인 사상, 경제, 문학, 철학, 정치, 군사, 교육 등 비교연구나 대비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다산 정약용과 호찌민 주석 사상에대한 연구 팀을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1/ Vu Van Dan : “국민을 근간으로”본 호찌민 주석의 관점: 군대문예신문 (2009/11/2)
- 2/ 호찌민 주석과 “국민을 근간으로”본 관점: (VOV- 2007/2/11)
- 3/ Nguyen Dang Thuc: 동방 철학 역사 Hochiminh 시 출판사 -1991
- 4/ 베트남 청년이 삶, 전투, 노동이 호찌민 주석의 모범에따라 한다. 베트남 청년 중앙 발행 1986.
- 5/ 정약용 : " 목민심서" , 대산연구회 편역. 창비출판사 -2005 (한국어)
- 6/ 정약용: "목민심서“ (만화)서울대선정인문고전 50 선 (7) 주이어 김영사 2008 (한국어)
- 7/ Vietnamnet.vn
- 8/ Google.com.vn

9/ <http://naver.com> (Dasan jeong Yak Yong)

10/ <http://blog.chosun.com>